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더 소울

종교NEWS

고성발전을 위한 신앙인들의 활동

The Soul. 소울(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다.

“믿음 속에 화합을 일구는 소통의 신앙, 봉사와 희생으로 지역을 거듭나게 한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고성 연화마을 5월 4일 개원...쾌적한 환경·도내 최고 수준 시설



고성 연화마을이 5월 4일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원내 사진은 월풀욕조 모습.

대한불교조계종 건봉사가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인 '고성 연화마을'이 오는 5월 4일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간성을 해상리에 위치한 고성 연화마을은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지내다 갈 수 있는 공간이다. 공기가 좋고 별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수질 1급수의 청정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췄다.

또 장비와 시설면에서도 도내에서 운영되는 요양원 가운데 최상급에 속한다. 특히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월풀욕조(터빈을 이용해 욕조의 벽면이나 바닥 등에서 물이 분사되는 기능을 갖춘 욕조)와 전동침대를 설치했으며, 물리치료실에는 슬림과 도구 등 유럽식 재활운동기구를 비치했다. 고성 연화마을은 이처럼 최고의 자연환경과 최상의 시설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족탁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40여명의 직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계획이다. 고성 연화마을은 노인요양 인정 1~3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질환으로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 정원은 80명이며, 시설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 부담하고 20%는 자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다. <문의 : 033-682-8500> 최광호 기자



고성 연화마을 원장 송담 스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마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마을, 직원들과 입소자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는 5월 4일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고성 연화마을 원장 송담 스님(50, 사진)은 “고성 연화마을은 나이 들어 몸이 아프거나 심신이 피곤한 어르신들이 즐거운 인생을 보내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성스러운 장소”라고 소개했다. 송담 스님은 “입소자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실 때 행복하게 보내드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며 “직원들에게도 어르신들을 인력하게 모실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고성 연화마을은 지난 2009년 겨울 건봉사의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구상에 따라 사업 추진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중반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현재 건물과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주변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원을 50여일 가량 앞둔 요즘 고성 연화마을은 빠듯한 예산 때문에 당초 개원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요양원 주변 잔디 깔기 작업과 정자조성 및 ‘월체어 산책로’ 조성 등이 한창이다. 송담 스님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욕심을 버리는 수행을 해왔는데, 연화마을을 준비하면서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며 “입소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송담 스님은 “연화마을은 입소자 정원 80명이 다 채워질 경우 직원들이 4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역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15년전 부산 범어사로 출가한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철원 심원사를 거쳐 3년전 건봉사 부주지로 취임했다. 최광호 기자

생활속 봉사 실천 거진성결교회 '다비고 섬김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결식아동돕기·목욕봉사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 함께 봉사해요.” 거진성결교회(담임목사 정현진) 신도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다비고 섬김이(회장 한향구)'가 바쁜 일상속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소외된 계층을 찾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다비고 섬김이'는 정기적으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과 장애인 이·미용봉사, 결식아동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 집수리, 목욕봉사, 말벗되어주기 등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15년째라고 했다. 한향구 회장은 “교인으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전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복지사각 지대 대상인 소외계층을 찾아 봉사하는 단체로 신도들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 회장은 “명태축제, 교회헌금, 거리모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며 “순수한 봉사단체로 주님의 가르침을 전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초대 회장을 역임한 함홍남 안수집사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이라는 테마로 30여명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결성해 독고 노인들을 찾아 청소와 빨래, 반찬봉사 및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거진성결교회 신도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다비고 섬김이'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김치를 담고 있다.